

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5.26.(금) 한겨레, “외국인 가사노동자 우려 쏟아져도...정부 “시범도입””, 매일경제, “월급 100만원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막을 이유 없다”, 서울신문 “언어·문화 차이 커 안전 우려”, 경향 “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한 나라들, 출생률 증가 효과 없었다”, 한국일보 “외국인 가사도우미 선부른 도입은 부작용”

2. 설명내용

- 저출산 대응,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가사·돌봄 분야 외국인력 활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, 내국인 종사자 규모 감소* 및 고령화** 등이 진행되는 상황

* 가사육아서비스 종사자 규모(천명,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(매년 하반기))

: ('16) 186 → ('17) 164 → ('18) 142 → ('19) 156 → ('20) 144 → ('21) 121 → ('22) 114

** '22.上 기준 종사자의 92.2%가 50대 이상 (50대 33.2%, 60대 이상 59.0%)

-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은 가정 내에서 근무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그 사회적 영향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므로,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구체적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해외사례, 국내 노동시장 상황, 세부 업종별 수급 실태조사,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이상임 (044-202-7157)
		담당자	서기관	이재인 (044-202-7145)